

서곡교 사거리 교통개선 나선다

전주시, 2025년 8월까지 상습 정체 '서곡교~홍산교 구간' 차로 확보·인도 정비 등 추진

전주시가 서곡교~홍산교 구간의 교통개선을 위해 도로를 개선해 교통체증을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2025년 8월까지 총 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서곡교 사거리 등 서곡교~홍산교 구간에 대한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업 구간인 서곡교 사거리는 주요 간선도로인 온고을로와 홍산로, 백제대로와 기린대로까지 연결하는 주요 교차로로, 차량 통행량이 많아 주말과 출퇴근 시 상습 정체를 겪고 있다.

특히 이곳은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 하가지구 등 각종 도시개발로 인해 해마다 교통량이 꾸준히 증가하면

서 시민들의 불편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5월부터 실시한 교통개선사업 실시계획 용역을 통해 교통환경을 조사·분석하고 문제점을 진단했다. 또,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차로수 확보 및 차로폭 조정 등의 개선안을 검토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해당구간의 교통개선을 위해 △홍산교~서곡교 방면 2차로 확장 △하가지구~롯데백화점 방면 1차로 확장 △횡단보도 및 교통섬 조성 △교통신호물 정비 등을 계획하

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포함해 올해까지 총 1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이달 중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이후 추가 필요 예산을 확보한 후 오는 2025년 8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승철 도시건설안전국장은 "이번 공사가 완료되면 서곡교 일대 상습 정체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사 기간 시민들의 통행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인 만큼, 시민들께서도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쿠뮤영화스튜디오' 제2스튜디오 전주 건립 총력

아바타 등 다수 흥행작 제작 영화촬영소... 전주시·전주시의회, 준비 차 뉴질랜드 현장 방문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지역 영화·영상 산업 발전을 위해 해외 투자 유치 활동에 함께 나섰다.

영화 '아바타' 등 다수의 흥행작을 제작한 세계적인 영화촬영소인 뉴질랜드 '쿠뮤영화스튜디오(Kumeu Film Studios)'의 아시아 제2 스튜디오 전주 건립이 최대 목표다.

14일 양 기관에 따르면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장과 송영진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전주시 노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양측 대표단이 이날부터 20일까지 뉴질랜드와 호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영화 '아바타'와 '올리버 트위스트' 등을 제작한 뉴질랜드 영화촬영소 쿠뮤영화스튜디오의 방문 요청에 따른 것으로 쿠뮤 측은 아시아 제2 스튜디오 건립 등 투자 의지 확인과 향후 투자 연결을 위해 마련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해 5월 뉴질랜드 공무원출장을 통해 쿠뮤영화스튜디오

와 교류 협력을 약속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쿠뮤 측이 전주를 찾아 영화·영상 산업에 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한 바 있다.

대표단은 첫 일정으로 15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호주 시드니 무역관을 방문해 쿠뮤영화스튜디오가 전주에 투자할 경우 거쳐야 할 절차와 조건 등을 확인한다.

또 18일에는 쿠뮤스튜디오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전주 투자에 대한 보다 상세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대표단은 쿠뮤의 아시아 제2 스튜디오 전주 건립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차원에서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교와 아시아태평양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등을 방문하는 등 지역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은 "의회의 공무원출장이 세계적인 영화스튜디오의 전주 유치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

는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방문이 우리 지역 영화·영상 산업 발전을 위한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주는 '제2회 전주국제영화제'의 역사가 말해주듯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화의 도시로서, 최첨단 버추얼 스튜디오 조성, 한국형 영화음원 구축 등 미래 영화산업을 위해서도 꾸준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뉴질랜드 쿠뮤 스튜디오 제2스튜디오가 전주에 건립돼 영화산업 발전이 더욱 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쿠뮤스튜디오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서부 약 27만1000㎡(8만2000평) 면적에 자리한 영화촬영소이다. 현재 디즈니와 BBC 등 해외 제작사의 작품들을 꾸준히 유치하면서 인력과 유학, 관광, 분장, 소품, 미용 등 지역 내 영화 관련 산업들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덕진구,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민·관 합동점검

14일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김봉정)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다수 밀집된 전북대학교 구정문 일대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점검 및 청소년 보호·선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덕진경찰서, 전북 유해환경감시단 등 유관기관 총 13명이 참여하여 편의점과 음식점, 노래방 등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한 업소를 대상으로 관호 내용으로 진행했다.

아울러 청소년보호 관련 홍보 현수막 게시와 홍보 물품 배부, 청소년 상담센터(국번없이 1388번)를 홍보하는 등 청소년 보호·선도 캠페인도 함께 추진했다.

한편 덕진구는 매분기마다 정기적으

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 청소년 보호선도 캠페인 등 청소년 보호 활동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오고 있다.

김봉정 덕진구청장은 "덕진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올바르게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협력해 청소년 보호 지도점검 및 캠페인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내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터의 중증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

